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미치는 성과 혼외성경험의 영향

이영숙*, 이영화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A Study on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and gender

YeongSug Yi* · YoungHwa Lee
 School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

1. 서론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성의 65%, 여성의 41%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¹⁾. 한국사회에서 혼외관계는 이제 특정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의 일이 된 듯한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혼외관계는 대부분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부부관계를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부부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에서 혼외관계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안정성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외관계를 허용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혼외관계를 경험하는 주체의 성에 따라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2006년 1월~4월까지 조사한 질문지 492부를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도구인 질문지는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혼외성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허용적 태도는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로 분류하여 질문하였고, 혼외성경험은 '결혼 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性)경험이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 '없다'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조

사결과는 빈도, 백분율, x^2 ,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3.1.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성과 혼외성경험의 영향력

<표 1>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배경변인	나이	.56**	6.75	1.75	.39	2.96	1.48	.38	2.42	1.46
	교육	.19*	4.27	1.21	.15	2.26	1.16	.23*	4.67	1.26
	소득	-.06	.34	.93	-.01	.00	.99	-.05	.20	.94
	종교 (있음=1)	-.81***	16.69	.44	-.61**	8.42	.53	-.55*	5.95	.57
성	성 (남=1)				1.43***	50.03	4.19	.64**	7.43	1.91
경험	경험 (유=1)						1.85***	50.48	6.38	
-2LL		626.94			574.10			518.85		
Cox & Snell R ²		.04			.14			.24		
Nagelkerke R ²		.06			.19			.32		
chi-square		22.45***			75.29***			130.54***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설명력을 탐색하기 위해 배경변인, 성, 그리고 혼외성경험유무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배경변인, 성, 그리고 혼외성경험이 남성의 혼외관계에

1) 동아일보. 2001. 3. 14

대한 허용도를 32%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경변인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6% 설명하는데 반해 성과 혼외성경험유무는 각각 13%씩 설명함으로써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는 배경변인보다 성과 혼외성경험의 설명력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3.2.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성과 혼외성경험의 영향력

<표 2>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배 경 변 인	나이	.66**	8.42	1.94	.60**	6.76	1.83	.61*	6.22	1.85
	교육	.19*	3.65	1.21	.17	3.01	1.19	.25*	5.44	1.29
	소득	-.01	.01	.98	.00	.00	1.00	-.03	.08	.96
	종교 (있음=1)	-.71***	11.76	.49	-.62**	8.79	.53	-.57**	6.71	.56
성	성 (남=1)				.45*	4.99	1.58	-.45	2.86	.63
경험	경험 (유=1)							1.69***	40.29	5.46
-2LL		580.78			575.76			530.81		
Cox & Snell R ²		.04			.05			.13		
Nagelkerke R ²		.05			.07			.19		
chi-square		19.14***			24.16***			69.11***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배경변수만을 넣은 1단계에서는 나이, 교육수준과 종교가 유의하며 5%의 설명력을 가지나, 성 변수를 추가한 2단계에서는 나이, 종교, 그리고 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설명력은 7%이었다. 혼외성경험 변수를 추가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의 증가가 12% 더해져 총 19%로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 때 성은 의미 없는 변인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나이, 교육수준, 종교 그리고, 혼외성경험이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1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미치는 성과 혼외성경험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혼외관계를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와 기혼여성의 혼외관계로 나누어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기혼자 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성과 혼외성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들은 각각 13%씩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경변인보다 큰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혼외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혼외성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6.38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혼외성경험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와는 달리 성은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혼외성경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이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설명하는 양도 2%에 불과했고 혼외성경험의 설명량도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의 설명량에 비해 적은 12%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이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며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만 차이가 나는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혼외성경험은 남성의 혼외관계와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에 모두 영향력을 가지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남성에 대한 것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동아일보 2001. 3. 14.